▶ 갤러리 '숨' 박지예 '옆집 여인Ⅱ' 전

몽환적 신비감과 감각적 몸짓으로

작가 자신·주변인들 주요 모티브로 설정 중년여성으로서 느끼는 욕망·자유 표출

박지예 작가의 '옆집 여인Ⅱ' 전이 갤러리 숨에서 열리고 있다.

'옆집 여인'은 아이 엄마로, 시댁의 며느리로,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 맘으로 되풀이 되는 삶에 지친 중년 여성들의 모습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듯 애매모호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다.

작품 속 옆집 여인의 형상은 아름다운 몸을 반추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며, 몽환적인 신비감과 감각적인 몸짓으로 감정을 드리운다.

박 작가는 "인물의 모델은 나의 모습이거나 내 주변인들이다. 인생의 중반이 되면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욕망과 개인의 자유를 표출하고 싶었다"면서 "여러 감정과 삶이 미묘하게 표현된 인물을 화면에 그렸다"고 했다.

작품은 얼굴에 집중하며 형체는 자신의 하루하루의 충실한 감정을 계획되지 않은 구성으로 표현한다. 살구색을 기본으로 여러 색의 변화와 물의 농도에 따른 번짐을 다르게 표현하고자 했으며, 연한 회색빛을 사용해 감추고 싶은 감정의 기복을 담아낸다.

작가는 원광대학교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문연구원을 맡고 있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관람객 위한 혜택 '다채'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는 영화제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

영화제 사무처는 전주 시민 및 전주지역 대학생을 위해 폐막식 및 '전주 돔 상영'을 동반 1인까지 50%할인 해 준다. 이는 현장 예매 시에만 적용되며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15인 이상의 단체관람객도 폐막식과 '전주 돔 상영'을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단체 예매 기간은 21일까지로,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jiff_ticket2@jiff.or.kr)로 보내면 된다.

Jeonju IFF 서포터즈도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개·폐막식를 비롯해 심야상영·마스터 클래스는 2천원을, 일반상영·토크 클래스·전주 돔 상영은 천원을 할인받는다.

이 같은 할인 혜택은 만 65세 이상 실버세대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도 주어진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은 동반 1인까지, 실버 할인은 본인만 가능하며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Jeonju IFF 서포터즈 티켓 할인은 온라인 및 현장에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할인은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는 모든 상영작마다 현장 판매분(전체 좌석의 10%)을 배정한다. 온라인 예매를 놓친 관객은 전주라운지 매표소 및 상영관 내 매표소 등을 이용하여 당일 현장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온라인 예매는 매진작을 제외하고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jiff.or.kr)에서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 소리꾼들 모여라'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28일까지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젊은판소리 다섯바탕'에 참여할 소리꾼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98년생 이상 83년생 이하의 남녀 소리꾼으로, 60분 이상의 소리판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소리축제 공식홈페이지(www.sorifestiv al.com)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소리를 녹음한 음원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 선발된 소리꾼들은 오는 9월 20일~24일 열리는 제16회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무대에 오르게 된다.

소리축제 관계자는 "소리축제는 젊은 국악인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고민하고 젊은 소리꾼들을 위한 최고의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숨은 실력을 가진 젊은 소리꾼들의 패기 있는 도전과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안녕, 선미' 참여예술가 모집

(재)전주문화재단은 성매매 집결지에 위치한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안녕, 선미'의 참여예술가를 24일까지 모집한다.

프로젝트 '안녕, 선미'는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96번지. 전주시청 뒤편 성매매 집결지에 위치한 선미촌의 변화상을 5월~9월에 걸쳐 관찰 및 탐험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예술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순수·대중예술분야 예술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장르·나이·등록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사업대상지에 100일 이상 방문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인의 예술가를 선정해 창작지원금 5백만원(1인당)과 선미촌 유휴공간과 10개의 방·마당을 지원한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예술가는 예술 활동 외에도 라운드테이블, 작가와의 대화, 결과공유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예술가의 시선으로 선미촌의 변화를 기록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jcf.or.kr)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babydoll101717@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문체부-관광공사, '코리아 둘레길' 명칭 대국민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현재 가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리아 둘레길'의 정식 명칭을 공모한다.

코리아 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지역 등 우리나라 둘레를 연결하는 약 4500㎞의 전국 규모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이다. 올해 남해안 지역 노선 잇기를 시작으로 2019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명칭 공모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광공사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 접속해서 코리아 둘레길의 특징과 비전을 담은 명칭과 의미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총 3회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3개의 이름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9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노상놀이 '모양대로 풍장허네' 고창읍성 앞에서

2017 전라북도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작품으로 선정된 '모양대로 풍장허네'(연출 이성수)가 오는 22일 고창군 고창읍성 앞에서 개막한다.

올 9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농악치배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 연희자들이 등장해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재능을 뽐내면서 고창의 매력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고창의 유명한 여러 관광자원들에 대한 소개를 농악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내어 고창의 찾은 여행객들이 꼭 봐야 할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모양대로 풍장허네'는 ㈔고창농악보존회가 기획·제작하는 공연으로, 고창농악 이수자들의 화려한 개인놀이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창의 실력 있는 청년국악인으로 구성된 국악예술단 '고창'의 소리꾼 정호영, 이건일 씨를 비롯해 만장놀이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여현수 씨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는 전북도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야외공연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지난 2월 공모한 바 있다. 재단에서 선정한 노상놀이 작품들은 주로 거리극이나 퍼레이드 형태의 작품으로 진행되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전북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모양대로 풍장허네'를 연출한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 고창농악 이수자인 이성수 씨는 이번 공연에 대해 "유·무형의 문화자원과 청정한 생태자원이 풍부한 고창이 지닌 무궁무진한 매력을 재미나게 소개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모양대로 풍장허네'는 전라북도, 고창군,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토요상설공연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혹서기 7~8월 제외, 총15회) 고창읍성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